

안녕하세요 위클리예요

[Weekly: 2025/07/28~2025/08/03]

2025.08.04

[로봇] 규모감이 커지는 정부의 로봇 사업

- K-휴머노이드 연함에 새로운 국내 기업 다수 참여
- 씨메스의 연이은 물류 및 공정 자동화 공급 계약. 기술 사업화 기대감 확대
- CES에서 현대차의 아틀라스를 볼 수 있다는 소식. 현대차 중심 로봇 기대감 확대 전망

[방산] 활발한 정부의 방산 마케팅

- 정식 체결된 현대로템의 폴란드 K-2 2차 계약. 9조원 규모로 최대 규모. 새로운 국면 진입
- 국내 방산 기업간의 치열한 미래 방산 사업 공방전. 천군 3는 LIG로. 전자전機는 누구에게?
- 獨 대규모 지상무기 조달 세부 내용 변경. 전차 줄고 장갑차 늘어나. 美는 미사일 보충 계약

[항공] 2분기 노선별 여객 비중 체크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통합은 차근차근 진행 중. 에어서울을 T2로 이동. 이번에는 CSR 통합
- 이스타항공 매각, 파타타항공의 부활, 에어인천의 아시아나 화물 인수 종료 등 새로운 국면
- 철저하게 LCC 모델을 추구하는 라이언에어. 수화물 수익과 저렴한 공항 이용료 추구

[조선] M.A.S.G.A!!!

- 기다렸던 미국발 LNGC 수주. CP2 FID로 12척 발주 전망. 컨선도 중국과 치열한 경쟁
- 물들여온 한화오션의 VLCC 수주. 어느덧 10척 초과. 추가 파이프라인도 협의 중
- 한-미 관세 협상의 최대 수혜로 떠오른 조선. 미국 조선 투자와 협력 확대 기대



Weekly Keyword

규모감이 커지는 정부의 로봇 사업

K-휴머노이드 연합의 참여 기업 수가 대폭 증가. 기존 40여개 수준에서 160여개로 늘어날 전망. 대부분의 국내 로봇 기업이 참여하는 것. 이 외 과기부 사업 등 로봇 관련 사업 활기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91)

[규모감이 커지는 정부의 로봇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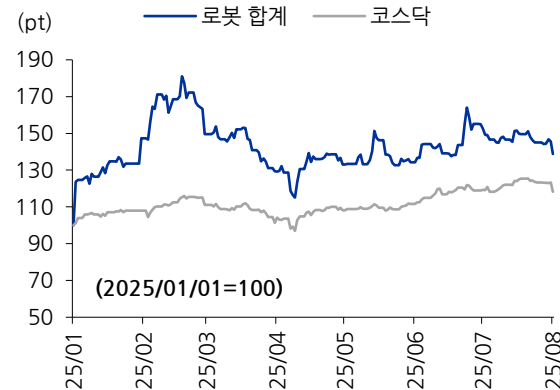
- 지난 4월 출범한 K-휴머노이드 연합의 참여 기업/기관 수가 대폭 증가. 151개의 기업으로부터 신규 신청을 받아 기존 40여개 기업/기관에서 160개 이상의 기업/기관이 참여하게 됨. 이는 대부분의 한국 로봇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수준(참고: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원사 290개). 금번 신규 참여 기업으로 알려진 기업은 씨메스, 마음AI, 와트, XYZ, LPK 로보틱스 등. 앞으로 수요 기업과 매칭하여 실용성을 추구한 산업 특화형 휴머노이드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됨.
- 7월 22일에는 한국 기계연이 주관하는 과기부 사업인 '자율성장 AI 휴머노이드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이 K-AI 휴머노이드 연구개발 비전을 선포함. 마찬가지로, 에이로봇, 라이온로보틱스, LG전자, ETRI, 생기원 등 다수 기업/기관이 참여 중. 인간 수준 이상의 신체 능력과 범용 지능을 갖춘 K-AI 휴머노이드 개발을 목표.

Key Chart: 주요 로봇 관련 사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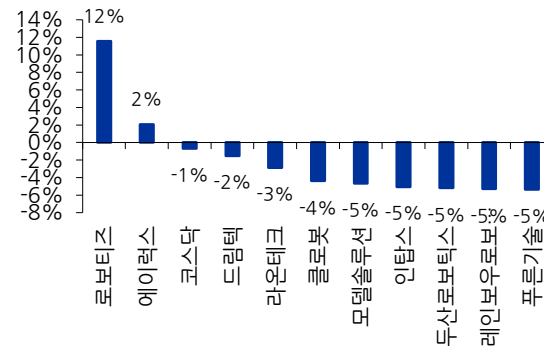
구분	추진 내용
K-휴머노이드 연합(산업부)	28년까지 로봇 AI 파운데이션 모델 및 고사양 휴머노이드 개발
자율성장 AI 휴머노이드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과기부)	기계연이 휴머노이드 플랫폼 개발하고, 생기원이 인핸드 매니플레이션 기술 개발, ETRI가 인공지능 핵심 기술 개발, 휴머노이드 데이터 팩토리도 구축 예정

자료: 언론 보도, 유진투자증권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로봇 기업 1M 시총 변화 Top 10



자료: Quantiverse

로봇 주요 뉴스(07/28~08/03)

[산업용 로봇]

- 두산로보틱스, 美로봇 솔루션 기업 '원엑시아' 인수
- 뉴로메카, 포토네오 3D 비전 도입. 로봇 자동화 범위 확장
- 뉴로메카, DGIST와 차세대 물리지능 구동기 연구실 개소

[서비스 로봇]

- 씨메스, 파스토와 10억 규모 물류센터 로봇 자동화 계약
- 씨메스, 60억원 물류 자동화 공급 계약
- LG전자 베어로보틱스, 유럽 서비스로봇 시장 출시표

[기타(정책/부품/SW)]

- 현대차, CES2026서 '휴머노이드 로봇' 첫 공개
- LG전자, 중국 휴머노이드 애지봇 투자 라운드에 참여
- 씨메스, 산자부 주관 K-휴머노이드 연합 수요기업 선정
- 하이젠알앤엠, 차세대 휴머노이드 개발 주관기관 선정
- 넥스트칩, 로봇시장 진출 본격화. B사와 공동 개발
- 마음AI, RFM 상용화 성공. 로봇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
- 뉴빌리티, 크립벤처로부터 10억 시리즈B 투자유치

[Global]

- 中 루모스로보틱스, '3000만원대' 휴머노이드 판매
- 中 애지봇, 견고 구르는 휴머노이드 로봇 'X2-N' 공개
- 텐센트, 로봇 기업들과 임바디드인텔리전스 '타이로스' 공개
- 日 인솔-하이, 산업 특화형 휴머노이드 훈련센터 설립 추진
- 日 사가와 익스프레스, 양팔 이동 로봇 '메크' 첫 배치
- 테슬라, 옵티머스 생산량 5천대 목표에 실체는 수백 대 불과
- 피규어, 휴머노이드가 세탁물 넣는 모습 공개. 가정용 실험
- Skild AI, 범용 로봇 AI 'Skild Brain' 공개



Weekly Keyword

활발한 정부의 방산 마케팅

폴란드 K-2 2차 계약이 체결. 현재 폴란드 외 정부의 해외 방산 수출 마케팅은 매우 적극적임. 동시기에 사우디에 공군참모총장이 방문하고, 국회의장이 루마니아 대통령 접견하며 K-방산 마케팅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방산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39)

[활발한 정부의 방산 마케팅]

- 오래 기다려온 8월 1일 현대로템의 폴란드 K-2 전차 2차 이행 계약이 정식 체결. 세부 계약 내용은 당초 파악된 내용과 일치. GF 버전 116대, PL 버전 64대로 구성된 총 180대 K-2전차에, K-2 기반 계열 전차(구난, 교량, 개척) 81대를 포함. PL은 APS와 드론 재머, RCWS 등을 포함한 업그레이드 버전. 폴란드 PGZ 부마르 공장에서 29년에 출고될 예정. 64대 중 첫 3대는 한국에서 공급되고, 잔여 61대가 현지 생산. 폴란드 생산 본격화로 잔여 물량에 대한 추가 계약 가시성 높아지고,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주변국 수출 확대 또한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임.
- 이와 동시에 공군참모총장은 지난 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서 KF-21과 천궁을 마케팅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루마니아로 날아가 폴란드는 물론 루마니아 대통령과 방산 협력을 논의. 정부/군 차원의 글로벌 방산 마케팅 활기. 추가 수주 기대감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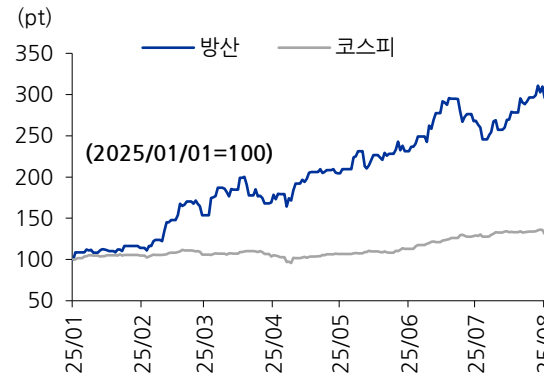
Key Chart: 폴란드 K-2 2차 계약 내용

구분	대수	인도 시기
K-2GF(한국 생산)	116대	26년 30대 27년 잔여(*87대)
K-2PL(현지 생산)	64대	28~30년
K-2 기반 계열 전차 (구난/교량/공병)	81대	28년~31년
총 계약 규모 65억불(1차 계약 규모 34억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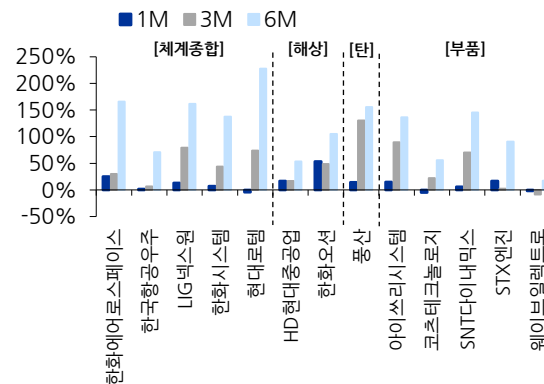
자료: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주) 인도 시기 및 물량은 외신 보도를 참고함

국내 방산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방산 기업 시총 변화



자료: Bloomberg

방산 주요 뉴스(07/28~08/03)

[수주/계약]

- 현대로템, 폴란드 K2 전차 2차 이행계약 체결. 9조 규모
- 키르기스스탄 KAI 수리온 2대 도입 추진
- 현대로템 페루 지상무기 조달 독점 조달권 획득
- 공군총장, 사우디 찾아 K-방산 "KF-21·천궁-Ⅱ 홍보"
- LG넥스원·현대로템, 공대공 미사일 엔진 공동 개발
- 천궁Ⅲ 개발 총괄에 LG넥스원. 한화는 레이더·발사대
- 한화, 천궁-Ⅲ 체계 개발 수주전 '디브리핑' 신청

[기업별 이슈]

- 구본상 LG넥스원 회장, 美 실리콘 본사 전격 방문
- KAI-한화시스템, 전자전기 블록-1 최초 공개
- 삼양컴텍, K-방산 랠리에 수요예측 흥행. 공모가 상단 확정

[기타]

- 9월 '한-나토 방산협의체' 출범. 방산 협력 및 공동 개발
- 수은-무보, 현대로템 K2 폴란드 수출에 52억달러 금융지원
- 방산,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기술' 투자시 30% 세액공제
- 우원식 의장, 루마니아 대통령과 면담. "방산 협력 확대"

[글로벌]

- 보잉 이번에는 방산 파업 목전. 임금 인상 협의 난항
- '태국 그리펜' 공습 본 스웨덴 "전투기 안 판다"
- 독일, 복서 5천대, 파트리아 3,500대 조달 추진
- 골든돔 미사일 방어망 첫 시험 28년에 예정
- EU 회원국, 방산 구매 위한 1,270억유로 대출 검토
- 록히드마틴, 사드 재고 보충 위한 20억달러 계약
- 인니, 튀르키예와 칸 전투기 48대 구매 계약 체결



Weekly Keyword

2분기 노선별 여객 비중 체크

2분기 국내 주요 항공사들의 인천발 국제 노선별 여객 수를 점검. FSC는 노선 비중이 20% 내외로 다각화. LCC는 일본 비중이 평균 50% 수준. 다각화된 FSC가 안정적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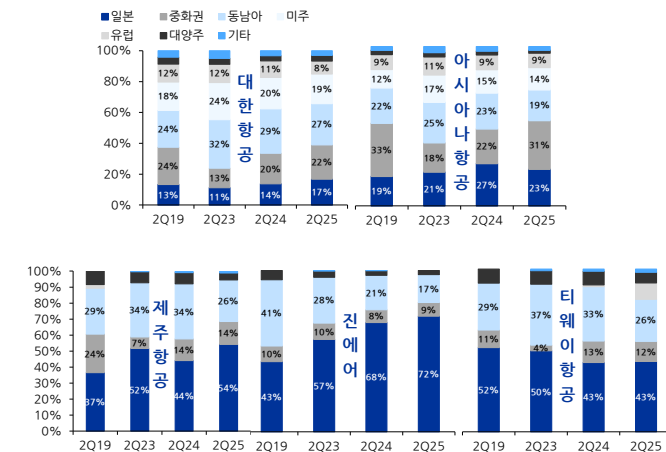


What's new? - 항공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39)

[2분기 노선별 여객 비중 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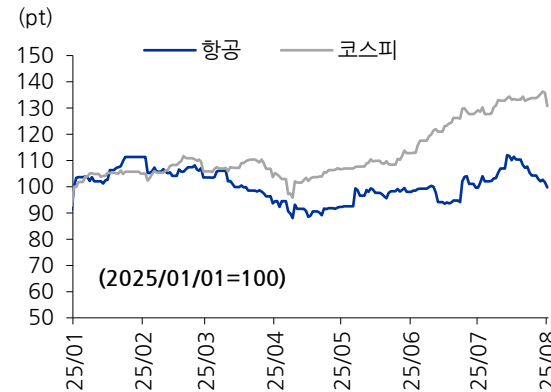
- 2분기 국내 주요 항공사들의 인천발 국제 노선별 여객 수 비중을 점검. FSC의 경우 동남아 비중이 줄고, 일본과 중화권 노선 비중이 증가. LCC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일본 비중을 유지 중. 중화권 노선 비중은 전년대비 유사한 레벨. 중국 수요 호조 속 중국 노선 증편 흐름이나, 중국 노선은 FSC가 강한 노선. 일본 지진 여파 등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 감 존재하는 가운데, 노선 비중 다변화된 FSC가 선호됨.

Key Chart: 국내 주요 항공사 노선별 여객 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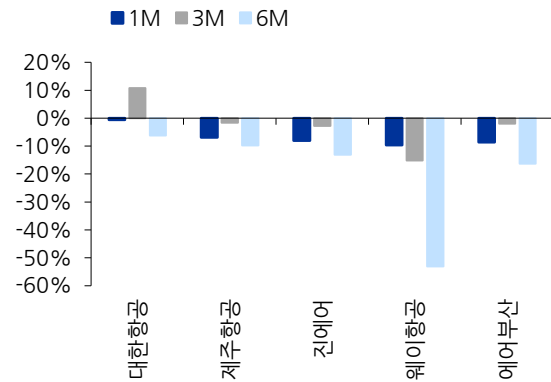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항공 주요 뉴스(07/28~08/03)

[여객/화물]

- 대한항공, 아시아나와 CSR 역량 결합. 공동 오디오북 제작
- 아시아나항공 日 후쿠오카 노선, 이스타항공으로 이전
- 아시아나항공, 동계 시즌 샌프란시스코-시애틀 운항 감편
- 무비자 이후 수요 55% 항공사들 中노선 증편 확대
- 대한항공 중국 노선 코로나 이전 90% 수준 회복
- 진에어, 신규 운항통제 시스템 'OCC 포털' 구축

[기업별 이슈]

- 에어부산 7/29, 에어서울 9월, 아시아나 내년 1월 T2 이전
- 제주항공 정시 운항률 78.7%, 전년대비 4.9%p↑
-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품은 에어인천, 에어제타로 새출발
- 파라타항공, 첫번째 A330-200 도입
- VIG 이스타항공 6,000억원에 매각 추진

[기타]

- 상반기 지연율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에어서울이 1위
- 재출범 앞둔 에어인천, 조단위 IPO 기대에 분주해진 IB
- 한국공항, 미국 FAA 정비조직 인증. 美 항공기 정비 제공

[글로벌]

- 라이언에어, 프랑스 노선 13% 감축. 항공세 인상에 반발
- 말레이시아, 中 자체제작 여객기 C919에 관심
- 3차 관세 협상 중국, 보잉 여객기 구매 '수요 조사'
- 영국항공, 기술적 문제로 120편 이상 항공편 중단
- 보잉 6년만에 최대 매출, 손실 축소. 올해 턴어라운드



Weekly Keyword

M.A.S.G.A!!!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주역으로 조선이 주목됨. 향후 1,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 협력 펀드 조성이 추진될 계획. 아직 세부안은 없지만 다양한 형태의 협력 추진 가능성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조선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9)

[M.A.S.G.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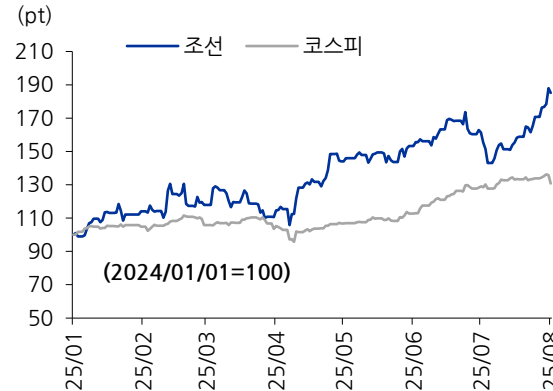
-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과 함께, 1,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 협력 펀드 조성에 대한 소식이 전해짐. 세부 내용은 공유되지 않았으나, 현재 TF를 구성하여 이달 중순부터 본격 세부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짐.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협력 예정.
- (1) 미국 내 숙련 인성 양성 과정(Shipbuilding Masters Academy) 신설, (2) 정부/민간이 중소 조선소 공동 인수 후 미 해군 건조/MRO 특화 조선소로 전환(케이조선 등 물망), (3) 상선 건조 위한 미국 조선소 설립 추진(인수 or/and 신설) 등.
- 1,500억 달러 중 지분 투자 비중은 5% 미만, 대부분 대출과 보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알려짐. 김용범 정책실장은 귀국 후 미국 내 조선소 신설, 미국 조선소 인수, 미군 함정 MRO, 미국 내 조선 인력 양성, 블록 건조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밝힘.
- 이와 같은 소식을 두고, 중국에서는 반발의 목소리. 미국 내에서 한국 내 미 함정 건조에 대한 리스크 제기되는 중. 한국 조선소가 어떠한 형태로 돈을 벌고, 미국과 Win-Win하는 구조를 가져갈지 주의 필요.

Key Chart: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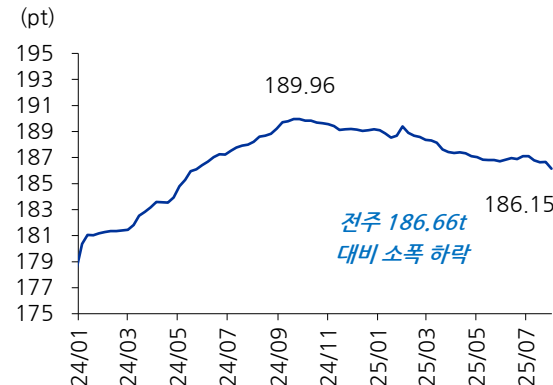


자료: 언론 보도, 유진투자증권

국내 조선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신조선가 추이



자료: Quantwise, Clarksons

조선 주요 뉴스(07/28~08/03)

[상선/해양]

- 12척' 미국발 LNG선 프로젝트 현실화. CP2 FID 결정
- CMA CGM 12척 발주 앞두고 韓中 2차전 돌입
- 한화오션, 초대형 원유운반선 2척 수주. 3,536억 원 규모
- HJ중공업, H라인해운과 LNG 연료공급선 건조 계약
- Carlova Maritime, 한화오션에 VLCC 신조 발주 추진
- 리스타드에너지, FLNG 30년까지 생산능력 3배 증가 전망
- 해수부, 한화오션과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계약' 체결

[특수선]

- 美 해군장관, 협상 타결 직전 필리핀 방문해 김동관 만나
- '마스가 프로젝트' 시동. 美軍 특화 조선소 세운다
- 미 해군, 한국산 이지스함 도입 '불가' 우세. 생존안보 등

[기타]

- 209조 조선 협력 K-조선, 韓美 관세협상 타결 최대 수혜
- 한미 정상회담, 12일로 조율 중. 美 조선소 방문 검토
- 민주당 이언주 의원, 한미 조선협력 지원법 발의
- 한국 조선, 직접투자보다 투자보증 중심. 기술인력 제공도
- 중 언론 "한미 무역협정, 中 조선 견제-시장 재편 의도 다분"
- 경남 지역 대형 조선소 일제히 여름휴가 돌입
- 전남 영암 HD현대삼호 주력 변전소에 불
- HD현대베트남, 베트남 국영 은행서 2000억원 자금 조달

[글로벌]

- 일 조선업체, '잠수함 수리계약 비자금' 대거 적발
- 미 해군, 조선 역량 부족으로 원자력잠수함 퇴역을 검토
- Eni가 아르헨 국영 YPF와 남미 최대 LNG 프로젝트 본격화